

유토피아의 도시·건축에 관한 연구

이 일 형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유토피아, 이상도시

1. 서론

원래 상상력이란 자연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유일한 혜택이다. 이러한 상상력을 현실에 적용시킬 때, 그것을 탈출하기 위한 현실비판이 나타난다. 따라서 인간의 상상력에 의한 현실 비판을 통해 유토피아(utopia)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 사실상 유토피아는 불안과 위기, 환멸과 좌절의 시대일수록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처럼 인간이 유토피아를 필요로 하는 때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도시·건축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서 유토피아를 제안한다. 이것은 유사 이래 극심한 사회적·문화적 격변을 통하여 그 당시의 문명이 지니게 된 비판적인 세계관과 미래관의 결과로서 나타났는데, 도시·건축에서 유용한 참조 개념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제껏 유토피아에 대한 철학·문학·사회학적인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방대함과 복잡함 때문에 도시·건축에서 나타나는

유토피아는 포괄적인 역사적 조명이 빈약한 편이었다. 따라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르네상스시기를 전후(前後)로 그 변천과정과 특성을 밝혀본다는 것은, 21세기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시기별로 관련된 유토피아 사상과 사례들의 역사적 전개와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유토피아와 개념과 접근의 차이는 있지만 표현상에서 유사점을 보이는 이상도시(ideal city)¹⁾도 포함하여 포괄

※ 본 연구과제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과제번호 20020157)

1) 都市·建築的 觀點에서 유토피아와 理想都市는 비슷한 개념으로 파악되거나 또는 다른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유사개념으로 보면 이상도시는 유토피아라는 넓은 개념 속에 포함되어 유토피아의 한 범주로 간주되지만, 다른 개념으로 볼 때 유토피아는 사회전반의 질서를 새로이 구축하면서 도시와 같은 물리적 구조도 사회의 한 구성요소로 인식하는 반면, 理想都市는 새로운 사회질서보다는 이상적인 도시구조가 사회개혁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는 점이다. 이처럼 이상적인 社會構成의 代案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유토피아는 이상도시와 다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공동체의 환경을 향상시키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의지에 바탕을 두고, 인간·사회·자연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위하여 사회전체를 개혁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유토피아가 기존의 현실에 반

적으로 유토피아를 고찰하였으며, 그에 따른 특성을 찾아내고자 하였다.²⁾

이것은 “유토피아와 도시의 이미지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로우(Colin Rowe)의 시사(示唆)나, “도시는 휴먼스케일을 반영한 하나의 틀 속에서 사회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최초의 유토피아는 도시 그 자체이다”라는 뎀포드(Lewis Mumford)의 설명처럼, 결국 유토피아 사상이 다양한 사회개혁을 통해 물질(物的) 형태로 희망했던 것이 이상적인 도시·건축이고, 또한 유토피아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건축가들이 제안했던 이상적인 계획도 도시·건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반면, 이상도시는 이러한 비전에 어떤 물리적 환경을 이루려는 시도에 있다. 그러나 “...결과물로서 매우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서로의 작품을 모사하지는 않았지만, 解體主義의 建築的 形態에 유사한 형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존슨(Philip Johnson)의 말을 되새겨 볼 때, 사회적 개혁을 추구했지만 非專門家였던 社會 思想家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의 도시·건축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신념으로 建築家가 제시했던 이상도시에서 나타난 그것의 이미지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것의 개념보다는 드러난 건축적 형태구획을 중시한다면, 유토피아와 이상도시는 매우 유사한 표현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규목, 도시의 상징, 일지사, 1992, p131

이일형, 해체주의 건축, 도서출판 전일, 1992, pp5~7

이일형, 이상도시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4.12, pp85~91

2) 여기서 본 연구와 관련된 用語의 意味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Utopia(No place, Nowhere)란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인 것을 의미하며, 理想都市는 비교적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개인적 신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Eutopia (Good place) 또는 Eftopia는 ‘좋은 場’이란 뜻으로 불가능성이라든지 비현실성을 함축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토피아보다도 특정한 것이나 실제적인 것을 나타낼 때 쓰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상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상도시를 포함한 에우토피아·에프토피아를 유토피아의 범주로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이일형,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건축적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설네디자인학회논문집, 2002.12, pp184~190

2. 유토피아의 역사적 전개와 개념

2-1. 유토피아의 역사적 전개

동양(東洋)에서 가장 오래된 유토피아의 개념은 BC 6세기 노자(老子)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것의 원시 사상적 이념도 다양한데, 무릉도원(武陵桃源)이나 도화원기(桃花源記) 등이 그러한 예이다.³⁾ 또한 그것의 기원은 만다라(曼荼羅)의 형태로 유추할 수 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이상적인 장소에 대한 꿈을 꾸고 그것이 반영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만다라와 닮은 모습은 이상도시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⁴⁾

3) 도화원기는 中國 晉代의 도연명(陶淵明;365~427)이 지은 遊記이다. 이것의 배경에는 秦人洞을 비롯한 실향민 부락의 전설이 있으며, 老子의 小國寡民 사상과 관련 있다. 仙境의 傳承에 중대한 역할을 한 도화원기의 유토피아 사상은 후세의 문학·예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

C.A. Doxiadis, 편기봉 역, Entopia, 화영사, 1983, pp42~43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두산동아백과사전 8, 두산동아, 1996, p79

4) 曼荼羅는 自我를 제통합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어원적으로 볼 때 梵語의 ‘Manda(마음의 참 또는 본질이라는 뜻)’라는 어근과 ‘La(소유 또는 성취라는 뜻)’라는 접미사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만다라는 ‘마음속에 참을 갖추고 있음’을 뜻하며, 교리적으로 보리심(菩提心)에 해당한다. 만다라의 靈性 체험은 儀禮를 매개체로 하여 心象에서 圖上으로, 도상에서 심상으로 전이되는 상외존관계 속에서 새로운 영성 체험으로 심화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의례를 통하여 심상이 도상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만다라의 가시화, 도상의 영성적 전언이 의례를 통하여 심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만다라의 내면화, 새로운 도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만다라의 이도화 단계라 말할 수 있다. 고대 멕시코 고원에 자리 잡고 있는 테오티후아칸(Teotihuacan)이 종교적 상징이자 우주론적 표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8세기 경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평원 언덕에 세워진 불교사원이자 스투파(불탑)인 보로부두르(Borobudur) 역시 불교적 이상세계를 건축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것은 건축적으로 표현된 순수한 만다라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Tuan Yi-Fu, Topophilia, Englewood Cliffs, 1974, p114

김용환, 만다라, 열화당, 1991

강혁, 고대의 이상적 건축과 유토피아, 이상건축, 1994.10

또한 주례(周禮)와 풍수사상(風水思想)에 의해 이상적인 도시의 형태구획을 이루고자 했던 중국(中國)⁵⁾, 그리고 이에 영향 받은 한국(韓國)⁶⁾과 일본(日本)⁷⁾의 과거 도시사례들 역시 이상적인 형태구획을 의도했던 계획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상적인 장소에 대한 역사적 언급은 지구상의 낙원을 찾는 최초의 기록으로 BC 2천경에 길가메쉬(Gilgamesh)의 이야기에서 비

롯된다. 서양에서 유토피아의 역사는 보통 고대 그리스⁸⁾에서 플라톤(Plato)의 이상국(理想國)⁹⁾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로마의 비트루비우스(Vitruvius)는 현실적 상황에 기초하지 않고 원형(圓形)의 형태를 사용하며, 조화·규칙·에워쌌의 개념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화(神話)와 점성술(占星術)에서 비롯된 8각형과 같은 기하학적 형식에 집착하여 유토피아로서의 이상도시를 묘사했었다.

그러나 정확히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모어(T. More)의 <유토피아, 1516>¹⁰⁾를 시초로

5) 宇宙의 象徵으로서 都市形態는 圓·正方形·별(星)·八角形·多角形 등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원이 方形化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으며 中國의 都市形態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中國建築의 一般的 特性은 <①주위를 壁으로 둘러싼다. ②中軸線을 지니고 있다. ③南北方向을 유지한다. ④반드시 中庭을 지니고 있다.>와 같은데, 장대하고 정교한 중국건축과 도시계획도 불과 몇 개의 단순한 원칙과 관례에 따르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오래 전부터 주택·사원·궁전, 또는 전제도시의 배치 등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도시사례로는 長安·蘇州·杭州, 그리고 중국 도시계획 원칙의 현저한 실례로서 北京 등이 있다.

Andrew Boyd, 이왕기 역, 중국의 건축과 도시, 기문당, 1989
賀業鉅, 윤정숙 역, 중국 도성제도의 이론, 도시출판 이회, 1995

6) 韓國에서 城郭의 形態는 지형적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이나 대체로 長方形, 正方形, 橢圓形, 圓形 등으로 형성돼 있다. 그 중에서도 4각형과 원형이 가장 많았다. 또 城門은 2문~4문 및 多문 등이 있었다. 4각형이 많았던 것은 우리 조상이 땅은 네모지다는 생각 아래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곽은 언제나 東西南北에 큰 大門을 만들어 놓은 네모진 것이었다. 정방형에 4문으로 구성된 全州城郭도 그러한 사례이다.

손정목,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 일지사, 1977, p78
김의원, 한국국토개발사연구, 대학도서, 1982, p290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 학연문화사, 1994, p51

7) 日本에서는 모모야마(桃山)에서 에도(江戸)時代 前半期에 걸쳐 군사방어적인 목적으로 덴슈카쿠(天守閣)를 포함하는 城郭建築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도시의 기본구조가 7세기의 나니와쿄(難波京)와 후지와라쿄(藤原京), 8세기의 헤이조쿄(平城京)나 9세기 이후의 헤이안쿄(平安京)처럼 長方形이나 格子形 구성을 하고 있다.

윤장섭, 일본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西和夫, 이무희 역, 日本建築史, 도서출판 세진사, 1995
太田博太郎, 박언근 역, 일본건축사, 도서출판 발언, 1994

8) 이론적·형태적으로 유토피아의 도시·건축적 실체이며, 구체적인 물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西洋理想都市의 기본을 내포하는 시점은 고대 그리스 이후로 평가할 수 있는데, 특히 都市國家들로 분화된 것은 이상적 哲學者들의 사상이 도시영역으로 침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남각 외 2인, 이상도시의 유형에 관한 연구(1),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권 제1호, 1999.10, pp33~44

9) BC 387년 아카데미아를 창설한 전후로 집필한 <國家>에서, 플라톤은 국가를 커다란 인간으로 보고, 개인의 영혼이 이성·기개·욕구의 3가지로 이루어진 것처럼 국가도 3계급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조화에 의해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理想國家는 哲人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라고 보고, 가장 바람직한 정치로 哲人國家를 주장하였다. 그의 理想的國家社會는 세 階級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快樂을 일삼는 者들로 이들은 經濟的 活動에 종사하며 富를 축적하고, 둘째는 名譽를 갖는 者들인 戰士로서 폴리스 防衛에 전력하여 財產과 家庭이 인정 안 되고 財產·婦人·아이들을 共有하며, 다만 名譽만을 추구한다. 셋째는 知를 사랑하고 갈구하는 者들로 지성으로 사물의 善惡을 판단할 수 있기에 理想社會를 통합하는 最高權限이 부여되며, 그들의 생활은 禁慾生活의 계속이어야 한다. 그래서 각자는 그들의 천성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열등한 다수자의 욕망도 소수의 지성에 굴복하여 知者를 통한 理想社會의 秩序는 올바르게 잡히게 된다" 플라톤은 그 외에도 <티마이오스>에서 理想國家에 대한 언급을 '아틀란티스'의 사례로서 기술하고 있다.

Plato, 최현 역, 플라톤의 국가론, 집문당, 1989
Plato, 박종현 역, 티마이오스, 서광사, 2000

10) '유토피아'라는 말은 원래 Thomas More가 저술한 당시의 英國에 다양한 특징을 나타낸 架空의 나라에 대한 책의 제목에서 비롯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는 理想國 또는 理想郷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래 모어가 그리스어의 '없는(ou-)' '장소(topos)'라는 두 말을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서, 동시에

하여 안드레아(J.V. Andreae)의 <기독교국, 1619>¹¹⁾, 캄파넬라(T. Campanella)의 <태양국, 1623>¹²⁾, 베이컨(F. Bacon)의 <뉴아틀란티스,

이 말은 '좋은(eu-) 장소'라는 뜻을 연상하게 하는 이중기능을 지니고 있다. 1516년에 출판된 그의 책에서 유토피아는 想像속의 국가를 의미하는데, 羊毛가격의 등귀에 따른 'Enclosure 運動'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며 신랄한 현실 비판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유토피아는 상상 속의 밀리 떨어진 섬에 있는 場所로서, 법률·정치기구·사회조건 등에서 이상적인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그려졌다. 노예제도를 존속시켜 그 시대의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측면도 있었으나, 사유재산과 화폐제도의 폐지 등은 최초의 社會主義 사상을 잉태하고 있었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조합되었다. 首都 Amaurotum는 규칙적이고 정방형에 가까웠으며, 마을은 구릉의 정상에 치솟아 서있고, 한쪽 끝으로부터 강 쪽을 향해 2mile의 거리 내에 있다. 넓은 쪽의 측면은 江에, 좁은 쪽의 측면은 구릉에 접하고 있다. 기하학적 형태와 규칙성의 확립에 주목하여, 모든 마을과 계층에 동일한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그의 도시는 6천 세대 이상은 수용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어린이가 늘어나면 강제로 이주하게 한다. 초판본에 실린 목판화에는 중세건축의 전통을 계승하는 고딕양식이 나타나며, Crescent형은 섬 윤곽에서의 막연한 관계를 나타낸다.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5, pp275~314
Thomas More, 노제봉 역, Utopia, 삼성출판사, 1982

11) Johann Valentin Andreae는 독일의 루터교 목사로서 百科全書의 知識人으로서 일생동안 교육·사회·종교개혁에 헌신하였다. 노동자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Calw 敎會에 봉직할 때 신도들과 더불어 그곳의 織物業과 染色業 노동자를 위한 共濟組合을 결성하였고, 이를 통해 상부상조하는 理想的 協同村을 건설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성공적으로 지속되었다. 그의 유토피아인 기독교國(Christianopolis)는 바로 이와 같은 그의 다양한 관심과 체험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경건한 기독교의 德性을 理想化한 사회라는 점과 科學연구와 그 응용을 중시한 점에서, 그리고 産業協同社會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의 유토피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김영환,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사상, 탐구당, 1989

12) Tommaso Campanella의 <太陽國>에서 모색했던 이상적 생활형태에 대한 구상은 모어의 <유토피아>와 플라톤의 <국가>에서 영향 받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하다는 신념 하에 현실적인 입장에서 저술되었다. 원시 기독교의 생활방식을 부활시키려는 그의 의도는 일반농민의 사회적 해방도 동시에 꿈꾸고 있었다. 7개의 環狀地帶로 구성된 언덕위에 세워진 '태양국'은 마을의 직경이 2mile 이상이며 둘레는 7mile 정도이고, 언덕의 斜面으로 건물이 세워져있다. 東西南北으로 뚫린 4대 도로가 있으며, 도로를 따라 4개의 城門이 7겹의 圓形으로 된 城壁에 설치되어 있다. 중심부

1627>¹³⁾ 등 16~17세기에 유토피아의 사상이 연이어 출현한 시기가 그 탄생의 시점이며 가장 주목할 시대로 볼 수 있다.

유토피아는 중세 사회질서에서 근세 사회질서로 옮겨가는 재편성의 시기를 맞아, 거기에서 생기는 사회모순에 대한 단적인 반성으로서, 또는 근세 과학기술 문명의 양양한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생긴 것이다. 전자의 예로는 종교개혁 사상 가운데 '천년기설(千年期說)'의 비전을, 후자의 예로는 '뉴 아틀란티스'를 각각 그 전형(典型)으로 들 수 있다.

이들 유토피아의 비전은 계몽주의(啓蒙主義)시기에 공상적(空想的) 사회주의(社會主義) 사상가인 생시몽(Saint Simon)¹⁴⁾과 푸리에(Charles Fourier)나 공업자본적 사회개혁가인 오웬(Robert Owen)¹⁵⁾, 프랑스 초기 공산주의

의 높은 곳에는 圓形의 神殿이 세워져 있다. 그의 理想都市는 이전의 것들과는 달리 해박한 (科學)知識을 바탕으로 기술되었으나, 일반인의 생활상에 대한 기술은 모어의 <유토피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

Tommaso Campanella, 임명방 역, La Città del Sole, 삼성출판사, 1982

13) 近代實驗科學의 先驅者였던 Francis Bacon은 <The New Atlantis>에서 과학에 눈높이를 맞추면서 유토피아를 설계했다. 그것은 모어의 <유토피아>에서와는 달리 기술문명 사회이고, 多多益善을 選好하는 科學의 유토피아로서,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機械가 대신하므로 일하지 않고 먹고 놀 수 있는 소비지향적인 理想社會를 묘사하고 있다. Francis Bacon, 김중갑 역, The New Atlantis, 예코리브르, 2002

14) 貴族출신의 생시몽은 고정관념에 벗어나지 못한 동시대인 보다 더욱 현실적인 유토피아인으로서, 개인성에 바탕을 둔 고도의 Meritocracy(능력주의 사회)를 추구하였다. 그는 산업인 즉, 기술자와 노동자 계층이 세력을 가져야하고 과거의 지배계층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원리에 근거한 사회이론을 공식화하였다. 열렬한 新생시몽주의자였던 Le Corbusier는 그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Leonard Benevolo, 장성수 역, 近代都市計劃의 起源과 유토피아, 태림문화사, 1996

15) 오웬이나 푸리에 등이 속하고 있는 이른바 유토피아적 社會主義者들의 계획은 기존의 플라톤이나 모어 등의 사상적 흐름을 계승하면서도, 그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이상적 복지상태를 즉각적으로 실행하고자 한

(共產主義)자인 카베(Etienne Cabet)¹⁶⁾ 등의 이상사회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과 밀접한 유토피아는 20세기 유토피아 사상의 여러 계승자들이나 이들의 저술(著述)¹⁷⁾에서 보이듯이, 과학(科學)만능주의와 전체(全體)주의가 가져올 공포를 충격적으로 묘사한 ‘역(逆)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dystopia)’¹⁸⁾사상으

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2-2. 유토피아의 개념

유럽문화의 지적(知的) 전통을 특징짓는 중요한 사조(思潮)인 유토피아를 완전(完全)사회와 이상적 질서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때, 그것의 범주는 참으로 광대하고 애매하다.¹⁹⁾ 그리고 유토피아가 추구하는 완전한 사회상은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인데, 유토피아는 역사적 상황과 현실에 따라 항상 그 비전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이상적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都市와 地方간의 격차를 극복한다는 점과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커뮤니티를 하나의 거대한 家族으로 결집시킴으로써 개인과 가족간의 물리적인 분리를 극복한다는 테마가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Robert Fishman, Urban Utopias in the 20th Century, The MIT Press, 1982

J. Bronowski, 차하순 역, 서양의 지적전통, 홍성사, 1984

16) 카베는 프랑스 초기의 共產主義者이자 政治家였으며, 모든 구성원들이 극도로 평등한 상태에서 똑같은 일상을 생활하게끔 의도된 Icaria를 구상하고 실현시켰다. 여기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의복·집·가구를 소유하게 되는 극도로 평등한 사회였다. 특히 구성원들은 모두 똑같은 시간표를 갖게 되며, 모든 것이 획일화된 대량생산을 취하는 이상적인 산업시스템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실험이 되었다.

Yolende Dilas-Rocherieux, 김휘석 역, 미래의 기억-유토피아, 서해문집, 2007

17) 예를 들면 마르쿠제(Herbert Marcuse)나 블로흐(Ernst Bloch) 등 20세기 유토피아 사상의 여러 계승자들에 있어서나, 또는 베른(Jules Verne)의 <해저 2만마일, 1870>, 버틀러(Samuel Butler)의 <에레혼(Erewhon), 1872>, 웰즈(Herbert George Wells)의 <타임머신, 1895>, 블로흐의 <유토피아의 정신, 1918>, 허슬리(A.L. Huxley)의 <멋진 신세계, 1932>, 오웰(George Orwell)의 <1984년, 1949> 등의 관련 저술이 그러한 사례이다.

18) Dystopia(Anti-utopia)는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결합으로 가득 찬 사회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현대의 상황보다 더 혼란하고 무질서하며 파괴적인 사회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시를 해체하고 파괴한다. 또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미래에의 상황을 현대에 재현해냄으로써 현실 상황보다 현저하게 비판적이며 闇의인 사회상을 보여주어, 현실 상황을 비판하고 또 그 逆작용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에 비해 그 역사는 짧지만, 유토피아와 거의 유사한 의도를 지니고 그 역할을 해왔으며, 유토피아에 대한 허구성의 반발이나 보조적인 역할로서 나타난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

다. 이와 관련된 용어로서 Heterotopia는 유토피아의 이상적 지향과 디스토피아의 결합으로 가득 찬 사회상을 함께 가지는 사회를 의미하고, Necropolis는 死者의 도시를 뜻하며, Cacotopia는 열악한 場 또는 地獄이라는 뜻으로 디스토피아의 대체어로 쓰여 진다.

Aron Betsky, 정태용 역, Violated Perfection, 영문출판사, 1992, p169

변호세, 현대건축의 디스토피아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3, pp6~10

19) ①文學作品에 나타나는 牧歌의인 自然狀態나 黃金時代: 聖書의 에덴동산, Lucian의 Arcadia 등 ②픽션에 의해 설계된 理想社會 또는 최선의 國家像: 모어의 유토피아, 캄파넬라의 太陽國 등 ③政治思想에 있어서 이상적 정치질서와 그 원리를 제시한 것: 플라톤의 國家論, 루소의 社會契約論 등 ④歷史哲學에서 추구하는 歷史의 최종적 완성단계: 헤겔, 마르크스 등 ⑤宗教집단이나 革命집단이 표방하는 千年王國의 추구: John Ball, Thomas Muntzer 등 ⑥知識社會學에서 다루는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그리고 文化人類學과 教育心理學 등에서 다루는 幸福한 生活과 人間の 性格改造論 등이 모두 유토피아의 범주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상 위대한 사상가와 철학자의 체계적 사상은 대부분 유토피아적 요소를 내포하지 않은 것이 없다. 유토피아 사상을 이와 같이 확대 해석할 경우 이 모든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는 概念 정의란 거의 불가능하다.

20) 사회적 혼란기의 유토피아는 강력한 질서의 창출을 그 목표로 할 것이며 빈곤한 시대의 유토피아는 풍요한 사회를 꿈꾸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토피아의 類型과 形態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유토피아 사회의 기본적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①靜的 유토피아와 動的 유토피아: 禁慾的 유토피아와 慾求充足的 유토피아로 대체가능 ②平等的 유토피아와 階層的 유토피아 ③유토피아의 現實性 與否에 의한 분류: 現實逃避的인 것과 社會改革的인 것 또는 時空을 초월한 순수 관념적인 것이나 未來社會의 건설을 위한 구체적·실천적 성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현실 초월의식이며, 비판(批判)정신과 개혁사상,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창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까닭에 그것의 효용과 가치는 중대한 것이다. 그것의 특성을 나름대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토피아 사상은 주로 사회적 변혁기에 나타나고 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붕괴, 로마 말기의 민족 대이동에 따른 혼란, 중세 봉건사회의 해체, 근세 지리상의 발견으로 인한 신세계(新世界)의 등장, 근대 산업사회의 출현 등 기존 사회체제의 해체가 일어났던 르네상스·계몽운동, 그리고 모더니즘의 시대처럼 사회적 변혁기에 나타나고 있다.²¹⁾

둘째, 유토피아 사상은 현실 초월적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

영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유토피아의 사상이 현실사회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어, 그의 유토피아적 비전은 현실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서 유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토피아 사상과 나아가서는 원초적 자연 상태로서의 황금시대에 대한 꿈이나 플라톤의 이상국까지를 포함하여 일관된 특징은, 그들이 이상향(理想郷)을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은 세계라고 하면서도, 실은 어디까지나 현세와의 시간적·공간적 연속선상에서 꿈꾸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유토피아는 동양의 도원경(桃源境)이나 황천국(黃泉國), 서양에서의 하데스(Hades)와 같이 원시시대 이래 인류 일반에게서 볼 수 있는 타계관념(他界觀念)²²⁾처럼 시공(時空)을 단절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사회 제반적 사항과 연관을 맺고 있다.

셋째, 유토피아는 현실 개혁(改革)적 사상이며 해방정신의 표현이다. 자연정복, 사회통제, 복지증진은 근대 유럽문화의 핵심개념이며 진보(進歩)의 상징이었는 데, 베이컨의 낙관적 신념은 근대 과학적 진보관의 선언이며, 모어의 개념은 근대 사회주의가 추구했던 실천적 과업이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Anatole France)는 유토피아를 “모든 진보의 원리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시도”라고 말했다.

또한 만하임(Karl Mannheim)은 유토피아를 이데올로기와 구분 지었다. 이데올로기가 현실을 은폐하려는 지배계급의 수단개념이라면, 유토피아는 현실을 개혁하려는 힘을 갖고 있어 해방을 원하는 피지배계급에 존재한다는 것이

김영환,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사상, 탐구당, 1989, pp 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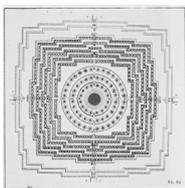
21) C. Rowe는 도시 유토피아에 대한 사고의 특성이 변화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 하나는 古典的 유토피아로서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도덕성과 정의에 의해 고무된 禁慾的인 유토피아이고, 다른 하나는 後期 啓蒙主義시기의 改革的 유토피아이다. 고전적 유토피아는 바람직한 社會의 像, 어떤 思想이 땅 위에 나타나는 자취로서 소수에 의해 제기되고 그것의 결과물인 理想都市 역시 제한된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교육적 도구로서 생각했다.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정치적인 도구가 아닌 실제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교훈적이며 상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대중들이 점차 현실 상태를 이해하게 됨에 따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험적인 상태가 중요하게 되어, 대중들에게 도덕의 추상적인 관념이 약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관념적인 플라톤적 모델인 古典的 유토피아는 보다 역동적인 改革的 유토피아에 의해 세력이 약해지게 되었으며, 모어에게서 영향을 받은 18세기 이후의 개혁적 유토피아는 都市形態에 치중하기 보다는 理想的인 社會의 實現을 위한 사회제도를 구상하여 이를 직접 실현시키려는 것으로서, 이상적인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즉시 행동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유토피아라는 용어 대신 종종 이상적인 커뮤니티 계획안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Colin Rowe & Fed Koetter, Collage City, MIT Press, 1978, pp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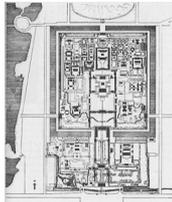
22) ①桃源境이란 地上樂園 또는 어딘가 말 못할 곳이나 멀리 떨어진 은신처를 말하는데, 서구에서는 샹그리라(Shangri-La)라고도 하며 James Hilton의 小説 <Lost Horizon, 1933> 속에 나오는 히말라야 山中의 가공의 理想郷을 가리킨다. ②黃泉(國)은 죽은 사람의 혼이 있는 곳, 즉 地獄을 의미한다. ③하데스(Hades)란 그리스 神話에서 '死者의 나라'를 말한다.

[표 1] 고대이후 르네상스시기 이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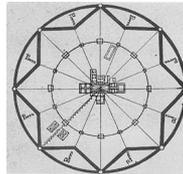
시대	특성	사례	
고대	그리스	Plato의 <국가> <티마이오스> 등의 저서에 나타난 유토피아의 이념을 그 근간으로 한다. 특히 '아틀란티스'에 대한 여러 기술이 理想都市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되었다. 피타고라스의 數에 대한 관념과 그리스인의 宙觀에 대한 복합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의 중심지에 위치한 12개 구역으로 분할된 지역의 중심인 아크로폴리스라는 언덕 위에 寺院을 두고 원형성벽으로 둘러쌌다. 이것을 기점으로 방사선으로 5040의 획지로 분할하고 5040명의 인구가 살게 배분하였다. 이 5040은 1에서 7까지 곱해서 나온 세분하기 쉬운 수이기도 하고, 또한 한 사람이 청춘을 모아놓고 육성으로 연결하기 알맞은 수이다. 또 방아·관개 및 급수·휴식·노인시설 등의 용도별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方位보다는 景觀을 중시해 방향의 일관성은 없었으나, 도시는 格子形 패턴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공공공간간의 중심성은 변함이 없다가 말기에는 市의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용도별 지역의 구분은 지속되었다. 또 격자 형태로 도로를 계획한 것만이 아니라, 기능에 맞는 시설도 효율적으로 배치하였다.	Miletus 출신의 Hippodamus는 정치이론에 의해 개인·농민·전투사로 구분하고 영토도 3지구로 구분, 신의 영역·공공의 장소·개인의 사유지로 구분하였다. 밀레투스는 전형적인 格子形 도로의 都市計劃을 보여주며 도시중심에 Agora·공원·종교·상업시설을 두고 남북 쪽에 矩形의 주택지를 배치하였으며, 都市景觀도 계획에 고려했다.
	로마	Vitruvius 이론을 기본으로 한 理想都市는 風向과 대지환경에 중점을 주었다. 防禦에 유리한 원형의 형태와 전염병을 피하기 위한 放射線 도로망을 제시하였다. 기본 주도로는 8개로 구성되고, 다시 거기에 3개의 보조도로를 놓아 24개의 風向 및 道路를 설정하였다. 여기에 적용된 '8'이라는 숫자는 아테네 풍의 탑의 8神을 의미한다. 일반인이 아닌 부유층과 권력층을 위한 건축을 강조하여, 비트루비우스의 이상도시는 選民思想에 기본을 둔 특권계층을 위한 이상 커뮤니티의 한 유형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神聖한 곳·公의인 곳·私의인 곳과 같은 3 기능 구로의 구분 배치법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후대의 알베르티, 필라레테 등에 많은 영향을 준 방사환상형의 도시사례이다.	로마의 신도시는 원정간 로마의 병영지가 도시의 기원이 된 것이 많고, 비트루비우스의 風向으로 風向을 중시하여 4각형·8각형·원형의 형태로 발전했으며, 기본적으로 cardo와 Decumanus라고 명명된 대도로 2개의 교차에 의한 軸線을 가진 도시가 형성되었다. 인구밀도는 ha당 250~500명으로 전체는 2~10만 명 정도였으며, 기존의 도시보다 훨씬 소규모였다.
중세	中世 유럽도시의 본질은 연속성·복잡성·집중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도시 형태는 기독교 영향으로 12使徒에 의한 12방향으로 발전하였다. 8각형의 도시 볼로나와 뉴베르그도 주가도와 출입문이 12개로 되어있다. 그리스의 격자형과 로마의 원형방사형이 혼재되어 있는 중세도시는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즉, 격선형·원형·방사형·격자형 등 여러 가지 배치가 있었으나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自然·傳統·異國의인 것·象徴主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세에 十字軍의 영향으로 天上의 都市는 聖스러운 土地에로 관심이 높아져서 순례자의 記述과 여행자의 지식이 강한 영향을 주어 추상적인 이미지가 점차로 현실적인 해석으로 대체되었다. 地上 에루살렘의 표현으로부터 상징으로서 聖都의 중세적 표현에 이르는 변인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형적인 중세도시인 파렌체의 경우와 같이 전체적인 도시계획보다는, 주어진 양식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이고 다양한 시면 활동과 의식적인 美的 노력이 중요시되었다. 중세에는 대체로 도시 전체보다 오히려 개개의 구성 요소가 계획되었는데, 도시는 평행한 도로로부터 이루어지며 도로 사이에는 시장과 주요한 교회와 방비시설이 있었다. 새롭게 건설된 마을에서는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탑이 항상 유사한 형태를 하고 서 있었다. 그것은 방어 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변화와 개성보다도 규칙성과 통일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방어도시 성채도시	



<그림 1> 만다라와 보로부두르



<그림 2> 북경의 자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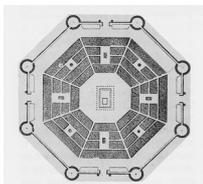
<그림 5> 필라레테의 스포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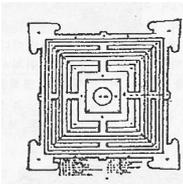
<그림6> 스카모치의 팔마노바



<그림 3> 그리스의 밀레투스



<그림 4> 비트루비우스의 이상도시



<그림 7> 안드레에의 기독교국



<그림 8> 망사르의 베르사유 궁전

다.²³⁾ 따라서 ‘이 세상에 없는 곳’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뜻하는 바는 마르크스(K. Marx)와 엥겔스(F. Engels)의 비판처럼 현실적 기반이 없는 비과학적인 측면을 갖지만,²⁴⁾ ‘더 좋은 사회와 세계’라는 꿈과 동경, 그것의 가능성에 대한 사색, 실현에 대한 기대와 희망 때문에 현실 초월적이지만 사회 개혁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토피아는 기본적으로 현실의 구속적 조건으로부터 해방정신의 표현이다.

넷째, 유토피아 사상은 전체(全體)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완전사회에 대한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질서를 모색하는 유토피아는 불가피하게 전체주의적 계획을 내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가 침해되는데, 플라톤·모어·캄파넬라·카베 등의 유토피아가 모두 개인의 자유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라든가 그 문제점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유토피아가 자유·민주사회에 위협이 되는 이른바 개방(開放)사회의 적(敵)이라고 본 점에서는 포퍼(Karl Popper)나 베르다예프(N.A. Berdyaev)도 마찬가지다.

대개 유토피아에서는 재산공유제(財産共有制)를 공통으로 주장하며, 플라톤의 철학자 지배사회, 모어의 종교적 공산제도(共產制度), 캄파넬라의 수도원적 금욕주의(禁慾主義), 베이컨의 과학적 유토피아에서와 같이²⁵⁾ 현실세계

에서 멀리 단절된 대양(大洋)의 고도(孤島)에 봉쇄적이고 자급자족적이며 물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또한 유토피아는 장소와 인간과의 관계만을 중시하고, 인간사이의 관계를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장소와 연관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탄생·죽음·친척관계·갈등 또는 권력·화폐·예술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 부적절하다. 게다가 그러한 설명은 환경과 사회의 연계에 의해 한 방향으로만 보기 때문에, 좋은 사회질서에서 생겨나는 공간적 결과들을 무시한다.

다섯째, 유토피아 사상은 디스토피아까지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기계에 대한 예찬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위기·공포에서 오는 불안의식은, 진보의 관념이 지배적이던 19세기에 싹트기 시작하여 20세기에 와서 더욱 심화되었다.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에 비해 그 역사는 짧지만, 유토피아와 거의 유사한 의도를 지니고 그 역할을 해왔으며, 유토피아에 대한 허구성의 반발이나 보조적인 역할로서 나타난 개념이다.

유토피아는 어떤 특정한 문명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루려했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유토피아의 이미지는 모든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해답을 찾아서, 그 사회적 배경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것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환경은 낙원(樂園)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장소는 깊은 두려움과 분노를 표현하기도 한다. 전원도시(utopia)와 기계화된 불안한 도시(dystopia)라는 두개의 대비적 요소가 우리시대의 유산이다.²⁶⁾

23) Karl Mannheim,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청아출판사, 1991, pp174~175

24) 김영환,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니즘*, 탐구당, 1989, p285

25) 르네상스시기의 유토피아는 古典的 유토피아에서 近代的 유토피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모어의 禁慾의 유토피아에서 점차 베이컨의 慾求充足의 유토피아로의 변화를 보여주며, 개인의 완성에서 사회적 조건과 제도개혁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 같은 과도기적 성격은 크게 基督敎의 세계관과 科學(自然主義)의 세계관을 조화시키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26) 유토피아는 이론적으로 理想社會와 既存社會를 비교함으로써 그 사회를 비판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사회가 항상 惡이고, 바람직한 이상사회는 지리적으로 먼 곳이나 미래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디스토피아에서는 동경하는 이상사회 또는 실현된 유토피아 그 자체가 바로 惡인 것이다. 그러므로 디스토피아의 비판은 기존사회가 불가피하게 결과할 미래사회가 惡夢

3. 유토피아의 도시·건축적 특성

3-1. 르네상스에서 계몽주의시기

기존 사회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유토피아는 봉건(封建)주의를 극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르네상스시기에 시작되었다. 또한 자본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는 사회(또는 공산)주의적 사회의 설립을 위한 이상을 가진 채, 보다 혁신적 대안들을 찾으려는 대개 역사적 위기와 급진적 변화의 상황 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여왔다. 이들 유토피아는 기존에 것들에 반대하면서 평등과 같은 공동체적 사고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사회의 개념을 보여 주었다.²⁷⁾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은 오래전에도 존재했지만, 단지 거주(居住)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특정 의도에 부합되는 실질적 의미의 도시계획이 시작되었던 르네상스시기에, 다빈치(Leonardo da Vinci)와 스카모찌(Vincenzo Scamozzi), 이전에 비해 구체적이지만 실현되

이 될 것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유토피아는 “인간이 마땅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훈계한다면, 디스토피아는 “인간이 마땅히 그 실현을 중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각성시킨다. 그러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는 모두 그 나름의 완전사회를 묘사하고 있으며, 내용상으로 서로 유사성을 갖고 있어 사실상 디스토피아는 그 본질에 있어서 현대과학에 의해 변형된 플라톤의 理想國家와 다름없는 것이다. 한편 건축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디스토피아를 묘사한 인물로는 18세기 피라네시(G.B. Piranesi)를 들 수 있다. 그는 수많은 도판에서 환각적인 환상 뒤에 보이는 허무주의적 전망을 보여 주었다. 또한 모더니즘시기에 페리스(Hugh Ferriss)는 도시적 유토피아였던 뉴욕의 맨해튼을 디스토피아로 묘사했는데, 이러한 영향은 현대건축에 전면적으로 디스토피아의 경향을 만연케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세, 현대건축의 디스토피아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93, pp33~43
 김영한,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니즘, 탐구당, 1989, pp288~295

27) 조극래·김동영, 19세기 유토피아 사상가들의 이상적 커뮤니티 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4권 6호, 2003.12, p107

지는 못했던 필라레테(Filarete)가 계획한 스포르진더(Sforzinda) 등의 이탈리아 이상도시 계획이나 프랑스와 독일 등의 유럽 각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요새(要塞)형 자족적 이상도시에서 나타난 사회적 요소는, 도시·건축 배치에서의 형식주의와 규칙적인 기하학적 평면의 우위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르네상스시기의 이상도시 범주에 속하는 계획들의 일반적인 형태적 특징은 다각형적 성형(星形) 둘러싸기, 도시 중심부의 광장(廣場)화 및 중심부와 주변을 연계하는 방사상(放射狀)의 도로체계 등이고, 이것의 의장(意匠)적 특징은 좌우 대칭적 구성, 비례적 구성 그리고 수평적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²⁸⁾

연속(連續)성·복잡(複雜)성·집중(集中)성이라는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는 중세의 도시와 비교해 도시를 특정한 이론적 틀에서 관조하고 계획하고자 했던 르네상스나 매너리즘시기의 건축가들은, 기후와 지형에는 관심을 나타냈지만 유토피아의 사상가들이 의도했던 질서정연한 사회체제와 조직이 실현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던 인구규모 문제에는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매너리즘시기의 건축가들은 스스로 군사(軍事)적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완성된 규칙적인 배치계획을 작성했었다. 그러한 요새와 성곽도시는 고대 로마의 비트루비우스와 르네상스시기의 필라레테의 전통에 기본을 두고 있다. 이 시기의 도시계획에서는 형식적이고 양식적인 전개와 군사적 방어에 기초한 축성술(築城術)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바로크시기와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따라서 실리주의적 목적과 형식적 도형(圖形)의 강조가 모든 계획에 나타나고 있다.

엄정한 기하학적 바탕 위에 자유로우며 때

28) 黒川紀章, 都市デザイン, 紀伊國信書, 2刷, 1996

[표 2]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시기의 사례

시대	특성	사례
르네상스	유토피아 이념에 영향을 받아 理想都市의 기본형을 제시한 시기로서 특징은 좌우대칭·비례적 구성 및 수평면속성이 강조되었으며, 시민권 등들에 바탕한 한 종류의 주거환경에 수용하려는 것이었다. 中世의 迷路形에서 대규모의 幾何學的 가로체계로 변화하였다. 로마시대 2개의 도로교차점 기법을 활용하였다. 새로운 지역에 만드는 도시의 기술적 발전에 따른 防禦的 개념의 城郭都市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또 職住분리와 용도구역을 재정립할 수 있고, 주택은 주변부로 이동하였다. 이런 변화는 도시전반에 걸쳐 사회적인 것과 근린관계의 개념을 확박하게 만들었다. 그 외 중세도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理想都市들이 많이 창안되어 바로크시기 도시개발 기초가 되었다.	전제군주 성세
	성기 르네상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지만, 16세기 후반이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해 특수화와 엄격한 분할로 진행되어, Mannerism으로 이 시기되고, 주택은 주변부로 이동하였다. 이는 대내규칙성과 엄격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사회 개념에 대한 사회적 요소는, 형식주의와 규칙적인 기하학적 평면의 유위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그것은 要塞와 城郭都市의 중대하는 필요성 때문에 실리적인 방법과 결합하고 있다. 이 元性이 아마 후기의 가장 특징적인 성격일 것이다. 매너리즘시기에 軍事的인 배려를 동반한 보다 제한된 형식적인 방법과 재료로서 도시의 동성일이 회복되었다.	성세주택
매너리즘	성기 르네상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지만, 16세기 후반이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해 특수화와 엄격한 분할로 진행되어, Mannerism으로 이 시기되고, 주택은 주변부로 이동하였다. 이는 대내규칙성과 엄격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사회 개념에 대한 사회적 요소는, 형식주의와 규칙적인 기하학적 평면의 유위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그것은 要塞와 城郭都市의 중대하는 필요성 때문에 실리적인 방법과 결합하고 있다. 이 元性이 아마 후기의 가장 특징적인 성격일 것이다. 매너리즘시기에 軍事的인 배려를 동반한 보다 제한된 형식적인 방법과 재료로서 도시의 동성일이 회복되었다.	성세주택
	성기 르네상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지만, 16세기 후반이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해 특수화와 엄격한 분할로 진행되어, Mannerism으로 이 시기되고, 주택은 주변부로 이동하였다. 이는 대내규칙성과 엄격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사회 개념에 대한 사회적 요소는, 형식주의와 규칙적인 기하학적 평면의 유위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그것은 要塞와 城郭都市의 중대하는 필요성 때문에 실리적인 방법과 결합하고 있다. 이 元性이 아마 후기의 가장 특징적인 성격일 것이다. 매너리즘시기에 軍事的인 배려를 동반한 보다 제한된 형식적인 방법과 재료로서 도시의 동성일이 회복되었다.	성세주택
바로크	왕과 귀족 중심의 고급문화 전성기였으며 城壁이 강조되었는데, 조소적·곡선적인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주요 가로는 넓게 확장되었고, 블록의 개념과 기하학적 형태가 도입되어서 녹지 공간이 개방적인 공공공간이 생겼다. 특히, 도시 치장 즉, 都市美的 향상이 요구되었으며, 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이었으므로 迷路形 가로체계에서 탈피하여 가로가 확장되고 개선되었다. 높은 탑은 도시에서 世界의 軸을 상징하고 있다. 이 탑으로부터 뻗어나간 32개의 방사선 도로와 함께 강한 집중성과 확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로마리던 베르사유
	왕과 귀족 중심의 고급문화 전성기였으며 城壁이 강조되었는데, 조소적·곡선적인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주요 가로는 넓게 확장되었고, 블록의 개념과 기하학적 형태가 도입되어서 녹지 공간이 개방적인 공공공간이 생겼다. 특히, 도시 치장 즉, 都市美的 향상이 요구되었으며, 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이었으므로 迷路形 가로체계에서 탈피하여 가로가 확장되고 개선되었다. 높은 탑은 도시에서 世界의 軸을 상징하고 있다. 이 탑으로부터 뻗어나간 32개의 방사선 도로와 함께 강한 집중성과 확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로마리던 베르사유
계몽주의	産業革命에 의한 工 業地帶의 처리문제와 용도별 지역 분배문제 등이 중요해졌다. ①공업시대의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공장배치와 노동자들의 숙소를 더 효율적으로 수용하려는 공업지대 및 주거지역의 밀착형 도시계획, ②공업시대에 의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위한 공업지대와의 분리형 주거계획 등이 고려되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문명의 다원적인 이상성이 결합되어 도시의 규모보다는 지구계획 수준의 이상성이 두드러졌다.	몬티첼로 시던센터 쇼 팔란스텔리 뉴레크 전원도시
	産業革命에 의한 工 業地帶의 처리문제와 용도별 지역 분배문제 등이 중요해졌다. ①공업시대의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공장배치와 노동자들의 숙소를 더 효율적으로 수용하려는 공업지대 및 주거지역의 밀착형 도시계획, ②공업시대에 의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위한 공업지대와의 분리형 주거계획 등이 고려되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문명의 다원적인 이상성이 결합되어 도시의 규모보다는 지구계획 수준의 이상성이 두드러졌다.	몬티첼로 시던센터 쇼 팔란스텔리 뉴레크 전원도시
계몽주의	産業革命에 의한 工 業地帶의 처리문제와 용도별 지역 분배문제 등이 중요해졌다. ①공업시대의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공장배치와 노동자들의 숙소를 더 효율적으로 수용하려는 공업지대 및 주거지역의 밀착형 도시계획, ②공업시대에 의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위한 공업지대와의 분리형 주거계획 등이 고려되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문명의 다원적인 이상성이 결합되어 도시의 규모보다는 지구계획 수준의 이상성이 두드러졌다.	몬티첼로 시던센터 쇼 팔란스텔리 뉴레크 전원도시
	産業革命에 의한 工 業地帶의 처리문제와 용도별 지역 분배문제 등이 중요해졌다. ①공업시대의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공장배치와 노동자들의 숙소를 더 효율적으로 수용하려는 공업지대 및 주거지역의 밀착형 도시계획, ②공업시대에 의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위한 공업지대와의 분리형 주거계획 등이 고려되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문명의 다원적인 이상성이 결합되어 도시의 규모보다는 지구계획 수준의 이상성이 두드러졌다.	몬티첼로 시던센터 쇼 팔란스텔리 뉴레크 전원도시
산업혁명	産業革命에 의한 工 業地帶의 처리문제와 용도별 지역 분배문제 등이 중요해졌다. ①공업시대의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공장배치와 노동자들의 숙소를 더 효율적으로 수용하려는 공업지대 및 주거지역의 밀착형 도시계획, ②공업시대에 의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위한 공업지대와의 분리형 주거계획 등이 고려되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문명의 다원적인 이상성이 결합되어 도시의 규모보다는 지구계획 수준의 이상성이 두드러졌다.	몬티첼로 시던센터 쇼 팔란스텔리 뉴레크 전원도시
	産業革命에 의한 工 業地帶의 처리문제와 용도별 지역 분배문제 등이 중요해졌다. ①공업시대의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공장배치와 노동자들의 숙소를 더 효율적으로 수용하려는 공업지대 및 주거지역의 밀착형 도시계획, ②공업시대에 의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위한 공업지대와의 분리형 주거계획 등이 고려되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문명의 다원적인 이상성이 결합되어 도시의 규모보다는 지구계획 수준의 이상성이 두드러졌다.	몬티첼로 시던센터 쇼 팔란스텔리 뉴레크 전원도시

로는 화려하고 과장되기까지 한 요소들로 가득 차고 압도적인 축선(軸線)의 중시와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었던 바로크시기에는, 망사르(J.H. Mansart)에 의한 베르사유 궁전과 빌헬름(M. Wilhelm)에 의한 독일의 칼스루에(Karlsruhe) 등에서 선상형(扇狀形)의 도시형태가 보이는데, 매너리즘시기의 모든 경향과 특성이 강력하게 남아있다.²⁹⁾

계몽주의시기에 유토피아적 비전과 이상도시계획은 프랑크혁명과 산업화의 흐름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사회에 관한 많은 비전을 제시했는데, 특히 일반 민중의 생활에 관심을 둔 불레(E.L. Boullée)와 르두(C.N. Ledoux)에 의해 고무되었다. 그들은 본질의 추구, 엄격한 감각, 장식에의 불신으로 건축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대부분의 이상사회 계획에서는 안락함, 좋은 기후, 기능과 함께 실현 가능한 형태, 그리고 경제적 지원의 접근성 등에서 더욱 직접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었다.

18세기말 이후 유토피아의 사고는 그 자체 내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활력을 가져왔다고보다는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일종의 상(icon)과 같은 역할로서, 사회의 문제점을 처방하기 위한 처방책이라기보다는 이상적 이미지와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³⁰⁾ 따라서 이상적인 사회 이미지로서의 유토피아보다는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새로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위한 보다 개혁적이고 실제적인 유토피아적 사고가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 결과로 이 시기의 근대적 유토피아는 이전에 비해 훨씬 실제적인 모습의 이상도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르두의 <Ville de Chaux, 1776>는 이런 사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건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르두의 ‘쇼’와 같은 새로운 도시나 오웬과 푸리에의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개념도 고전적 건물형태와 도시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이는 건축가보다는 사회 사상가들에 의해 대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³¹⁾

3-2. 모더니즘시기 전후(前後)

산업혁명이후 도시의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간의 주거환경과 공동체 단위로서의 도시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은, 사회를 통제하는 체제와 더불어 주거환경 그 자체가 가지고 있던 모순들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즉, 주거환경의 전통적인 형태들이 대부분 유기적(有機的)이고 무(無)계획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사회적 단위들, 예를 들면 대형공장과 업무지구, 대규모 주거와 철도·교통시설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합하게끔 주거환경의 새로운 형식이나 형태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왔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철도의 확산과 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공공교통 수단의 발전은 이상도시 계획안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선형도시와 전원도시는 철도에, 그리고 라이트의 계획안은

31) 理想都市論의 주역들 역시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들은 아니다. 특히 19세기 한국(朝鮮)과 유럽의 새로운 공동체론은 모두 사회 사상가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건축가들은 그들의 지도를 받는 협력자의 위치에 있었고 참여한 건축가들의 존재가 부각되지는 않는다. 東洋과 西洋이라는 지구 반대편에서 동시에 제기된 이 시기의 理想都市論은 非專門家들인 지식인들의 건축적 발언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계획의 인습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 또한 그들의 목표는 도시나 건축 자체가 아니었고, 그것들을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었다. 소프트웨어로서의 인간의 삶은 전문가라 자처하는 건축가들이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이다.

김봉렬, 이상도시론에 나타난 역사와 건축문화, 건축, v37 n4, 대한건축학회, 1993, p15

29) Helen Rosenau, 이호정 역, Ideal City, 태림문화사, 1986, pp61~73

30) Colin Rowe & Fed Koetter, Ibid, p14

[표 3] 모더니즘시기 전후의 사례

시대	사례	특성	
20세기	Tony Garnier 공업도시, 1904	공업을 중시하고 그 선행의 도시를 도회지 전체에 넓힌 것이나 조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르니에의 특장성이며 포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도 여기서 파생하고 있다. 지구분할에 있어서 일상생활과 특별한 인간 활동을 다른 구역으로 분할한다는 편중은, 위험한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	
	Antonio Sant'Elia 미래도시, 1914	未來都市에 대한 스케치에서 속도·커뮤니케이션·힘·변화로 가득 찬 세계를 표현했다. 거리는 여러 층집이 들어가서, 좁은 금속재료의 통로와 고속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된다. 미래건축의 근본적인 특성은 그것의 一時的과 變化性일 것이다.	
	Bruno Taut 알프스 건축, 1917	알프스를 개조한 환상적인 계획에서 바위는 수렴대 위에 결정체 모양으로 배어지고, 유리아치들과 격자모양들은 눈(雪)위로 솟아나와 있거나 갈라진 틈을 가로질러 도약한다. 表現主義의 연장선상에 있는 계획안이라 볼 수 있다.	
	Ivan Leonidov 마그니토고르스크, 1920년대	러시아 혁명의 초기에 가장 상상적인 설계자들 중의 한 사람인 레오니도프가 표현한 Magnitogorsk에 있는 거주지의 조감도 스케치에서, 선형도시의 2층 주거단들이 작은 공공court 주위에 4개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 곳에는 공원과 공동건물들이 서양 장기관 모양으로 변잡아 배치되고 있다.	
	Le Corbusier	보아상 계획, 1925	고전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는 평면에는 장방형 속에 내포된 정방형이 나타내고 있다. 가장 정적인 요소는 중앙부·도시주택부·개발지대 및 전원도시의 4개 부분으로 표시되는 엄밀한 조닝일 것이다. 고층사무소들이 중심에 위치하고 그 건물들 중앙에 空堀가 있으며, 그 지하에는 鐵道驛이 있다. 최고층 아파트 주위에는 6층으로 된 선형 주거 집단이나 혹은 4층으로 된 duplex형이 배치되어 있다. 공장시설과 낭만적인公園은 중심도시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그 도시는 명확하고 정적이며 중앙 집중적인 질서를 표현한다.
		빛나는 도시, 1930	'빛나는 도시'의 모델은 보다 현실적으로 되어있다. 여기서는 공원에 위치한 마천루와 유리의 사용, 단순한 형태가 강조되고 있다. 回廊街路는 완전히 없어지며, 수직의 田園都市가 공원을 절약하며 동시에 활발한 유통을 조태하고 있다.
	F.L. Wright 브로드에이커, 1934	라이트는 景觀 또는 건물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상은 'Broadacre'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도시에 대한 부정이었다. 주택·작은 농장, 그리고 다른 용도들이 널리 퍼져있는데, 자동차들에 의존하며 주간선 도로를 따라 산업체들이 선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도시이기 보다는 교통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안의 주거와 공장, 그리고 설비들의 格子體系라 할 수 있다. 자연적 배경은 보호되고 또 향상되어진다.	
	Yona Friedman 공중도시계획안, 1951~1960	요나 프리드만이 제시한 일련의 이상적 도시계획은, 도시를 하나의 영구적인 기본구조 또는 하부구조와 변화 가능한 부차적인 구조로 분할하고 있다. 지반 위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공간적 지지구조물을 기본 요소로 구상했고, 사용자가 자신들의 환경 속에서 형성화되어지기 훨씬 전에 발전되어질 수 있는 삽입된 내부 요소들로 이루어진 부차적인 형상을 고려하였다.	
	菊竹清訓 해양문명계획, 1960	키오노리 키쿠다케의 海洋都市에서는 원형의 인공 섬에 居住 타워가 여러 가지로 성장하는 형태로 세워져 있다. 원통형의 구조물에 공장생산의 주택 유닛이 붙여지고, 수직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B. Fuller 지오데식돔, 1961	뉴욕 맨해튼 일부를 수km에 걸쳐 덮고자 계획했던 유토피아적인 Geodesic dome은 氣候조정 돔의 구상이다. 거대한 空氣膜의 돔이 마천루까지도 띄워, 그 地區 전체를 이상적인 기후 상태로 유지시킨다. 문제가 산적해 있는 도시의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유토피아적 도시 구상이다.	
	磯崎新 공중도시 IV, 1964	아라타 이소자키의 '空中都市 IV' 계획안에서는, 수직 서비스 타워와 건축공간을 안으로 채워 넣은 결합 빌딩과 格子를 기조로 하는 공간 구조체를 몇 겹이고 쌓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日本의 傳統的인 木材의 組立物을 응용하고 있다.	
	Archigram 플러그인시티, 워킹시티, 1964	영국의 아키텍트는 그 내부에 機械가 살아있으며, 모든 환경을 이동하거나 분해할 수 있는 복합체를 상상했다. 이것은 더 오래된 유기체적 理想郷과는 대조적이다. 그들은 적응력이나 접근의 기술적 문제나 기능의 시각적 표현을 다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규모로 조직된 복잡하지만 일관성 있는, 인공적인 환경의 표현에 몰두하고 있다. 電子의으로 자극된 세계에서 인간의 존재는 비켜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Stanley Tigerman 인스턴트시티, 1966	미래세계에나 있을 법한 기능적이면서도 거대한 구조물이 간선도로를 따라 이집트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로 늘어서 있다. 슈퍼 스트러컬의 理想都市가 기계적 허구의 구조물로서 드러나 있다.		
Paolo Soleri 아콜로지, 1969	솔레리의 'Arcology'는 建築과 生態學을 결합한 개념이지만 그것에 의한 작품은 혁신적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新古主義의 전통에 스며들고 있다. 그는 'Stonebow' 'Noahs' (높이 1950m, 직경 3000m의 크기로 거대한 냉각타워 같은 모양을 한 원통형 구조 속의 아파트에 55만 명의 인구를 수용)과 같이, 그 엄청난 규모와 아주 세심한 디테일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 질서성과 대칭성에 대한 감각을 표현하고 있다. 그가 제안한 도시들은 간결하고 밀도가 높으며 복잡하다. '바벨'에서는 공장과 서비스 시설은 저층부에 있으며, 14개의 근린공원이 중심타워 내에 있다. 또한 'Mesa City'는 에리조나의 황야에 자리 잡고 있는 메사에 인구 200만 명을 상정하여 계획한 유토피아적 도시구상으로서, 솔레리는 生態科學의 都市라 부른다. 메사가 가진 독립성이 자율적으로 충족하는 커뮤니티의 이념과 맞물려 있다. 그것의 존립을 위한 생명선인 물(水) 확보를 위해 정교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자연과 일체화된 유기체와 같은 도시구조를 갖는다. 자연의 형태가 그대로 조형에도 활용되고 있다.		
Paul Rudolf 시티코리더, 1974	'City Corridor'는 뉴욕이라는 초거대 도시에 제안되었던, U. Franzen에 의한 '서비스 메가스트럭춰'와 폴 루돌프에 의한 '게이트웨이 빌딩'의 계획안은 모두 거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초거대 구조물로서 비교적 현실적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거대도시의 유토피아적 계획안으로 모색된 것이다.		



<그림 9> 오웬의 이상도시



<그림 10> 푸리에의 팔란스텔리



<그림 11> 르두의 쇼



<그림 12> 포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



<그림 13> 폴러의 돔으로 덮인 뉴욕



<그림 14> 솔레리의 팔면체형 도시

자동차에 바탕을 두었는데, 이것은 20세기 초에 나타나는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강조한 유토피아를 의미한다.

또한 19세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환경을 주관심사로 한 이상주의자들의 저서를 볼 수 있다. 모리스(W. Morris)의 <News from Nowhere>, 하워드(E. Howard)의 <Garden Cities of To-Morrow>,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라이트(F.L. Wright)의 <Broadacre City>와 같은 제안이 그것이다. 하워드·라이트와 같이 모리스는 그 구성원이 자연현상 또는 상호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균형과 질서 잡힌 작은 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면에서 퇴향적인 세계를 묘사했다.³²⁾

푸리에의 <Phalanstery>에서 보인 밀집형(密集形) 모델에 영향을 받았던 가르니에(T.

Garnier)의 <공업도시>나 상텔리아(A. Sant'Elia)의 <미래주의 도시>, 그리고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를 각각 비교해 볼 때, 유사성은 명확하다. 그것들은 에워쌈으로 폐쇄되고 중앙부의 중요 건물을 최소한으로 해서 새로운 전망을 개척하고 있지만, 동시에 도시유형의 결집성과 자연스러운 도시에서 유발되는 도시의 활력성을 잃고 있다. 이런 의미에 있어 하워드의 전원도시(田園都市)는 보다 전통적인데 특히, 도식적인 형태로 도시 핵(核)과 원형의 경계를 강조하여 이어지는 것은 흥미로우며, 토지의 공동이용 및 소유를 중시하는 개념과 공상적 사회주의자의 개념을 결합시키고 있다.

미스(Mies van der Rohe), 그로피우스(W. Gropius), 힐베르자이머(Hilberseimer)같은 바우하우스(Bauhaus)의 이론가들은 부분적인 평면안을 제시하였지만, 이상도시를 전개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꼬르뷔지에의 계획안들은 완전한 선택적 대안으로서의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³³⁾ 그러나 생시몽이 19세기 초에 예견한 사회가 20세기에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Ville contemporaine>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에 근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La ville

32) Neslian T. Dostoglu는 유토피안들이 상상하는 이상적 이미지의 특성에 따라 '鄉愁的(regressive) 유토피아'와 '進步的(progressive) 유토피아' 두 가지로 나눴다. 향수적 유토피아 사상가들은 현재 속에서 과거를 재생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진보적 유토피아 사상가들은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현재를 바꾸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았다. 19세기 중반 향수적 유토피아에 의해 나타난 제안들의 특징 중 하나는, 都市의 삶과 自然을 다시 연결하려는 욕망에 바탕을 두고 農村과 都市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Soria y Mata와 E. Howard의 都市 유토피아의 제안들이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Neslian T. Dostoglu, Architectural deterministic thinking in the development of urban Utop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9, p4
Kevin Lynch, 양동양 역, 도시형태론, 기문당, 1987, p87

33) 꼬르뷔지에의 <어바니즘>과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에서는 '살기 위한 기계로서의 집'과 플라넵의 중요한 요소로서 도구의 정의 즉, 유용한 것을 간결한 형태로 표현한 기능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도구와 기계의 작용은 그에 의해 보다 넓은 시야로 구현되고 있다. 또한 하워드의 중심가치인 협동과 라이트의 개인주의를 동시에 표현하고자 했다. 住宅이 살기위한 기계인 것처럼 都市는 산업사회에 적응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질서정연하고 계층화된, 그리고 효율적이고 근대적인 생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여겨졌다. 산업시설과 주거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배치되었으며, 그의 계획안에서 주거는 유니테(unite)라는 고층 아파트군이 중심이 되며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여러 곳(Marseilles, Lantes, Berlin)에 세워진 유니테는 생시몽과 푸리에의 사상을 종합하여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Robert Fishman, Urban Utopias in the 20th Century, The MIT Press, 1982

radieuse> 등 꼬르뷔지에의 이상도시 계획안들 역시, 도시·건축의 현실보다는 오히려 이상쪽에 관심을 두었음을 나타내고 있다.³⁴⁾

모더니즘 이후 유토피아적인 접근은 풀러(B. Fuller)의 <돔으로 덮힌 뉴욕>을 비롯하여, 프리드만(Y. Friedman)의 <공중도시>, 메타볼리스트(Metabolist)의 <해양문명> <공중도시 IV>, 아키그램(Archigram)의 <Plug in city> <Walking city>, 그리고 루돌프(P. Rudolph)의 <The evolving city>, 타이거맨(S. Tigerman)의 <Instant city> 등에서 보이듯이, 대체로 미래지향적인 과학과 기술발전을 토대로 과대한 기계적·이동적·순환적 시스템의 거대구조물(megastructure)로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세기 후반에 인간생활의 질적인 개선에 관심을 둔 사회적·도시적 수준의 제안에서보다는, 하이테크(high tech)라는 디자인 경향으로 건축적 수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3-3. 유토피아의 도시·건축적 특성

철학·사회학적 관점에서보다는 주로 도시·건축적 관점에서 유토피아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를 분기점으로 유토피아의 도시·건축에 대한 생각과 접근이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 사상가를

주체로 한 새로운 사회체제나 조직의 개혁에 대한 관심에서, 유토피아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건축가의 주도로 이념보다는 이상적인 도시·건축의 물적 구성으로 관심이 옮겨갔다고 볼 수 있다.

르네상스에서 바로크시기까지는 주로 그 당시 사회제반의 문제점을 급진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사상가들이 저술활동을 통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유토피아의 이상을 제시하였다면, 계몽주의시기부터 20세기 전까지는 산업혁명 이래 제기되었던 사회제반의 문제를 사회주의적인 시각에서 구상하고 전문 건축가의 도움으로 이전에 비해 보다 실제적인 수준에서 이상적인 도시·건축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이 비(非)전문가였기 때문에, 건축 자체보다는 새롭게 개혁하고자 하는 사회체제나 조직에 관심을 두었다.

반면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산업사회 문제점에 대해 주거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상적인 도시계획을 사회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은 건축가들이 주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유토피아 전개 양상과는 다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라이트나 꼬르뷔지에 등이 제안한 이상도시는 사회적 구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미약하고, 접근방법에 있어서 오히려 건축이 사회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건축결정론에 대한 믿음이 주도적이어서,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의 오웬이나 푸리에 같은 사상가들에 의한 이상적 커뮤니티 제안에서 볼 수 있었던 사회적 구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이상도시의 제안을 지배한 것은 물적 구성이었다는 데에 있다.³⁵⁾

34) 꼬르뷔지에의 住居建築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지배적이었다. 그 하나는 미래의 도시와 주거에 대한 그의 전망으로 社會에 대한 革新的인 觀念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大量生産에 대한 것이었다. 그에게 주택의 대량생산은 이상적 지역사회를 위한 개념이었으며 理想都市의 한 부분이였다. 새로운 건축에 대한 社會主義的 視覺과 社會改革에 대한 그의 관념은 창조적인 작업에서 다른 개념들의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物理的인 改革을 통해 보다 훌륭한 都市環境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유토피아 思想이었다.

정진수, 르 꼬르뷔지에의 도시안에서 그의 이념과 주거건축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권3호 통권23호, 1989.6, p40

35) 社會主義的 觀點에서 유토피아의 共同體的 理想은 충분한 綠地·採光·通風이 가능한 이상적인 주거환경의 田園都市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화된 사회조직에서 개인의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교류와 공동의 서비스가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과 구성원간의 평등을 중시하여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

둘째, 20세기를 변곡점으로 유토피아 도시·건축의 형태구획이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모더니즘의 변환기에 두르러지며 디스토피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르네상스시기의 유토피아에 관련된 저술에서 묘사된 도시·건축의 추상적인 표현이나, 스포르진더와 같은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안에서 드러난 이상적인 형태구획은 모두 엄정한 기하학적 배치에 바탕을 두고 중심성을 갖는 건물배치와 도로체계가 좋은 비례와 대칭성을 중시한 형태구획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이전까지도 역시 고전적·전통적인 방식의 도시계획과 비교적 단순화된 관습적인 건물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반면에 20세기 이후의 유토피아 이념에 따른 이상적 도시계획안에서 나타난 형태구획은, 대체적으로 수평적이고 중심성이 강조된 고전적인 기하학적 배치에서 벗어나 수직적인 배치와 복잡한 구성이 이전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로서 제시됐다는 점에서 특이한데, 이러한 경향은 근대건축에서 현대건축으로 넘어가는 변환기적 시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건축형태는 대체로 미래지향적인 기계적·구조적·설비 중심적인 거대구조물로서, 교환 가능한 기계적 장치 유닛(unit)의 집합형태이다. 또한 이전의 이상적인 도시계획들이 몇몇의 중심적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수평적인 배치에 따른 기하학적 평면구성과 중심성·대칭성·위계성(位階性)의 우위(優位)에 의한 고정

적·안정적이며 장소(場所)를 중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모더니즘의 변환기적 시점 이후에는 대지를 벗어나 공중과 해상에 동적이고 불안한 형태의 가설(架設)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그것의 기본단위가 되는 주거도 고정적·안정적인 관습적 건축형태에서, 쿠로카와(黒川紀章)의 <中銀 Capsule>에서와 같은 교환 가능한 기계적 장치의 유닛형태로 대체되었으며, 우즈(Lebbeus Woods)의 황망한 도면에서 보이는 파괴적인 기계적 이질(異質) 및 해체(解體)의 현상, 그리고 슈퍼스튜디오(Superstudio)의 <The Twelve Ideal Cities>에서 특정한 장소가 무시된 무한한 등방적(等方的) 공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든 도시와 건축이 어디서나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원래 있었던 장소로 되돌아 올 필요가 없는 장소성이 상실된 도시·건축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이것은 이전의 고전적이거나 개혁적인 유토피아 모두에서 강조되던 보다 안정적인 커뮤니티와 거주지로서의 소속감이 상실된 디스토피아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

4. 결론

유토피아의 사상들은 당시의 불합리하고 모순된 시대적 상황의 개선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단위 주택의 기능 및 형태뿐만 아니라, 인위적 건축 환경과 도시 공간구조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³⁶⁾

이렇듯 역사적으로 도시·건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유토피아에 대한 본 연구는, 개념과 접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 사상

는 블록형 집합주거에서 一字形 柱棟配置 형태를 가지는 주거단지로의 형태적 변화를 이루었다. 유럽의 전통적인 선형집합주거 형태와 都市街路 맥락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블록형 집합주거보다 더 균등한 채광과 통풍의 제공이 가능한 일자형 배치계획은 결국 표준화에 의한 대량생산의 이점과 도로건설비 절감 가능성 등과 같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보다 광범위하게 시도되었다.

36) 김제철 외 3인, 유토피아 사상과 근대 집합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9권 2호, 1999.10, p469

에 따른 사회 사상가들의 유토피아적 계획과 건축가들의 이상도시적 계획의 도시·건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방대한 규모의 유토피아 사상에 대한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상의 실제적인 구현(具現) 대상으로서의 이상적인 도시·건축에 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이며, 또한 철학(사유와 이론)과 사회학(현실과 실천), 그리고 도시(건축의 집합)와 건축(도시의 부분)의 거대하고 복잡한 종합으로서 그 명확한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선 유토피아의 역사적 전개 및 개념을 고찰하고, 상기(上記)의 [표 1] · [표 2] · [표 3] 과 같은 시기별 사례연구를 통해 그 도시·건축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했다. 그것의 역사적 전개는 르네상스시기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르네상스이후 계몽주의시기까지, 모더니즘시기 전후(前後)로 구분해 분류하였는데, 르네상스시기를 전후로 독자적인 발전보다는 상호 관련성을 통한 승계적인 발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토피아의 사상은 시대별로 단일 요소보다는 복합적 요소로 이루어졌으며, 유토피아와는 개념과 접근의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표현의 결과물로서 이상도시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것의 도시형태는 동양에서는 원형(圓形)에서 정방형(正方形)으로, 서양에서는 정방형(正方形)에서 다양한 형태(星形 또는 多角形)로 바로크시기까지 변화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유토피아의 이념에 따른 이상도시들 중에 고대 그리스시기의 격자형(格子形) 이상도시는 미국(美國) 등에서, 르네상스시기의 이상도시는 바로크시기의 궁정(宮庭)도시로, 그리고 모더니즘시기의 이상적 도시개념은 브라질리아

(Brasilia)와 샹디가르(Chandigarh)에서 실현되었다. 그 후 근대건축에서 현대건축으로의 변환기적 시점에 이상적 도시·건축은 아방가르드(前衛的) 디자인 경향에 영향을 받아 구조적·기계적·설비적 이미지의 거대구조물로서 제안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건축적 수준에서는 하이테크 계열의 건축으로 도시적 수준에서는 디스토피아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세기 전반기까지 유토피아적 계획과 그것의 물적 표현이라 볼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건축은 전체 배치구성 및 형태구획에서 비례적 구성을 중시하는 질서 있고 정연한 기하학적 패턴 특히, 원이라든가 사각형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이것은 평면구성에서 중심(르네상스부터 바로크시기까지는 주로 종교건축·궁전·광장, 그리고 20세기 이후에는 주로 초고층건물·거대구조물)이 강조되고, 방향성을 지닌 축(boulevard·가로·통로 등)이 좌우 대칭적으로 수평적 연속성을 갖는다. 또한 전체적으로 강한 에워쌈(enclosure)이 그 기반을 이룬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이후 유토피아적 계획과 그것의 이념에 따른 유사한 표현의 결과물로서 이상적인 도시·건축은, 건축에서는 거대한 기계적 장치의 부속품과 같은 유닛(unit)의 모습으로, 도시에서는 전체 배치구성 및 형태구획에서 이전의 것들과 확연하게 비(非)기하학적, 비(非)중심적, 수직(垂直)적, 가설(架設)적인 이미지의 거대한 구조물로서 과거 유토피아의 이미지와는 다른 디스토피아의 모습으로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

<참고 문헌>

1. Arnulf Lüchinger, 구조주의 건축과 도시 계획, 세진사, 1989
2. Bertrand Jestaz, 김택 역, 건축의 르네상

- 스, (주)시공사, 1999
3. C.A. Doxiadis, 편기봉 역, Entopia, 화영사, 1984
 4. Colin Rowe, 윤재희 역, 근대건축론집, 세진사, 1986
 5. Colin Rowe · Fred Koetter, Collage City, Cambridge, The MIT Press, 1986
 6. Francis Bacon, The New Atlantis, 에코리브르, 2002
 7. Heinrich Klotz, 동재욱 편역, 근대건축의 비전, 집문사, 1992
 8. Helen Rosennau, 이호정 역, Ideal City, 태림문화사, 1986
 9. Ian Tod, Utopia, Harmony Books, New York, 1978
 10. J. Bronowski, 차하순 역, 서양의 지적전통, 홍성사, 1984
 11. K. Mannheim,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청아출판사, 1991
 12. Kevin Lynch, 양동양 역, 도시형태론, 기문당, 1987
 13. Leonard Benevolo, 장성수 역, 近代都市計劃의 起源과 유토피아, 태림문화사, 1996
 14. Manfredo Tafuri, 김원갑 역, 건축과 유토피아, 기문당, 1988
 15. Robert Fishman, Urban Utopias in the 20th Century, The MIT Press, 1982
 16. Robert Nogic,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문학과지성사, 1989
 17. R. Wittkower, 르네상스 建築의 原理, 대우출판사, 1977
 18. Stan Allen, 장소와 정거장-임시 유토피아, Lusitania Press, 1996
 19. Sibyl Moholy-Nagy, 도시건축의 역사, 세진사, 1990
 20. Thomas A. Reiner, 理想都市論, 태림문화사, 1994
 21. Thomas More, 노재봉 역, Utopia, 삼성출판사, 1982
 22. Tommaso Campanella, 임명방 역, La Città del Sole, 삼성출판사, 1982
 23. Plato, 최현 역, 플라톤의 국가론, 집문당, 1989
 24. Plato, 박종현 역, 티마이우스, 서광사, 2000
 25. Yolende Dilas-Rocherieux, 김휘석 역, 미래의 기억-유토피아, 서해문집, 2007
 26. 김영한,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사상, 탐구당, 1989
 27. 김영한,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유토피아니즘, 탐구당, 1989
 28. 윤정섭, 도시계획사-비교연구, 건우사, 1984
 29. 임영방,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 문학과지성사, 2003
 30.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5
 31. 지연순·전진희, 르네상스 건축, 세진사, 1993

A study on City and Architecture of the Utopia

Lee, Yil-Hyung

(Assistant Prof. Soonchunhyang University)

Abstract

If we take account of the 'Architectural Tradition' which aims a construction of better environment, we can see that this tradition has ended historically toward Utopia. It is a continual trend from ancient Greece to contemporary epoch in each transitional periods and especially in the Renaissance Era.

Utopia is an ideal commonwealth in which inhabitants exist under perfect conditions, ideally perfect places or state of things. The plans of utopia are complete projects of image, its goal is an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al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eras.

Its plans are characterized by rigid geometrical pattern as circle and square, which contain generally center · axis · symmetry · enclosure. Recent urban and architectural circumstances no longer reflect utopian visions.

Since the latter of the 20th century, it appears dystopia on the contrary. Therefore, the utopian ideal city and architecture describes characteristics of the era unlike the continuity of its concept.

Keywords : Utopia, Ideal city
